

원자 전문가가 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 절 공간 활용도 포교전략이다

## # 법회 공간의 현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법회 때나 지금의 법회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지금도 법사 자격으로 법회에 참석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어떤 절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대웅전에서 난로도 켜지 않고 법회를 보기도 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를 부르는 절은 몇 군데나 있을까?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청년 법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김정관 (건축사)

로 보여진다. 불교도 이제는 신도교육을 통해 재적 사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신생활을 해야만 사찰 운영이나 포교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창출될 수 있다.

## ③ 사찰건축과 도심포교 성공의 조건

**한** 사람의 불자가여러 절에 소속된다.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절을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재적 사찰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형의 방법의 특성 때문이다. 초하루 혹은 보름 법회나 지정제일 관음재일 등의 재일을 통해 대중 법회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경우 개인 기도를 올리는 것이 보통 불자의 신형 방법이다. 결국 개인 기도를 통한 신형이기 때문에 한 절에 대한 소속감이 뚜렷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 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도 최근 안국선원이 현대식 사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찰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현대인에 맞는 현대식 사찰은 법회를 정착시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남자 신도를 오게 하고 신도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 시대에 맞는 사찰의 형식

필자의 직업이 건축사인 관계로 사찰 설계를 의뢰받으면 필히 신도를 위한 공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신도들의 교육 공간,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위한 소법회실, 다목적 홀, 신도단체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이다. 아직 이러한 공간을 제대로 설치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절을 의뢰받지 못했지만 200~300명이면 다양한 기능이 갖춰진 도시형 사찰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절은 꼭 기와집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신도들의 양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기와집이 아니면 절이 아니라며 설계가 취소된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법사 설법전의 경우에도 이중 목조부분은 전통사찰이라 기와집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층 부분은 기단으로 해석하여 외관 디자인을 하고 내부를 대형 강당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오디오 비디오키오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질 높은 법회를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로 바뀐 뒤로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만한 곳이 있을까? 산중에 있는 사찰만 템플스테이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 사찰 어디에서도 신도들을 위한 공간을 갖추기만 한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신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속감이 높은 신도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신도들에게 내 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맞는 세 점이 지어지기를 분발삼아 전에 발원한다.

## 최첨단 시설 갖춘 도심 사찰 성공 모델 배우길

영상·음향 시설 등이 포교의 중요 요소로 부각

다목적 홀, 교육·휴게실 등 신도위한 공간 많아야



최신 시설을 준비한 사찰이 도심 포교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 안국선원 방송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에는 자문문을 설치한 최첨단 사찰이다. 또 큰 법당에서 얘기 법당, 다목적 홀과 휴게시설, 회의실까지 갖춘 시대에 맞춰 가는 절이라 하겠다.

능인선원의 경우는 더 독특하다. 어떻게 20여만 명의 신도를 모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풀 수 있는 비밀은, 현대인의 생활에 맞춘 사찰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상에는 사회 복지관, 지하에는 사찰로 구성된 최첨단 현대식 건축물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자비를 실

현하면서 불법을 공부하는 내용만 전통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현대생활에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절의 성공 사례는 서울에서 현대식 사찰을 창건하는 좋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현대에 맞는 사찰을 보편화시키는 기폭제는 되지 못한 듯하다. 이 두 사찰은 이런 기능시설들을 통해 신도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신도들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적 신도들의 힘은 두 사찰이 지역 사

# ‘공’으로 한마음

범어사 학인 스님 vs 청년회원 축구대회



“베켄스님, 패스” 범어사주지 대성 강원 학인 스님들과 범어사 청년회(회장 이승룡) 회원의 축구대회가 7월 16일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사진). 오전까지 장마비가 내리 수중전으로 펼쳐진 이날 경기는 85 학인 스님들의 대승으로 끝났다.

년회와의 교류, 대중화합을 목적으로 한안거와 동안거 기간 중 주지스님의 허락 하에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16일 경기에 앞서 범어사는 14일 남산동 의국대 운동장에서 범어사 소인 스님들과 학인스님들 간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아 기자



## 범어사, 가족 템플스테이 열어

부산 범어사는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가족 템플스테이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가족 템플스테이는 우리가족 가훈 만들기, 가족 창작 등 만들기 등 가족 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찾고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이은아 기자

## 해동 용궁사 대웅보전 낙성



부산 해동용궁사는 7월 15일 용궁사 대웅보전에서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스님을 범사로 대웅보전 낙성 100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용궁사 대웅전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정진하는 불자님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며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여법한 법당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수심회 자비수관수련법회

자비수관 부산수심회는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을 초청, 자비심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자비수관수련법회를 부산 소림사에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봉행했다.

이번 자비수관수련법회는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며 의식으로 만든 자비손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수행일지 작성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비수관 법회를 주최하고 있는 자비수관수심회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지회 활동과 인터넷(www.jabisugwan.org)을 통해 자비수관 수행법을 알리고 있으며 올해 5월 강원도 경북 고령 자비사에서 월 2회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운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운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제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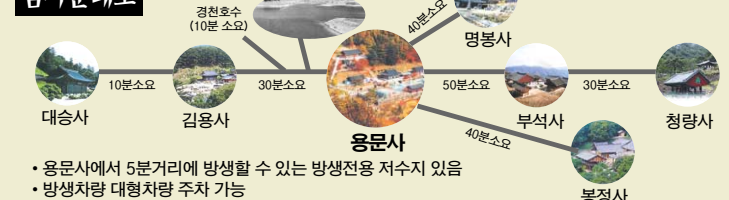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 용문사 소시는 길

-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합천IC
-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